메트로 2013년 7월 2일 화요일 제27?3호 www.metrobusan.co.kr

다음달엔 손가락 4개 '캘린더 그랜드슬램' 도전
1일 US여자오픈 우승자 박인비가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메이저대회 3연속 제패를 알리고 있다. 박인비는 올 시즌 앞서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을 차지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스물다섯살 박인비… 벌써 살아있는 전설이 되다

우즈도 소렌스탐도 못한 메이저 3연승 대기록

세리 키즈 박인비(25)가 마침내 박세리의 기록을 넘어서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박인비가 세계여자골프에서 63년 만에 한 시즌 메이저대회를 3회 연속 우승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관련기사 22면>

박인비는 1일 미국 뉴욕주 사우샘프턴의 서보낵 골프장에서 열린 제68회 US여자오픈 마지막 날 2오버파 74타를 기록,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로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박인비는 올 시즌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과 US여자오픈까지 제패하며 1950년 베이브 자하리아스가 세운 시즌 개막 후 메이저대회 3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또 2008년 US여자오픈까지 포함해 메이저대회 개인 통산 4승을 수확했고, LPGA 투어 통산 승수를 9승으로 늘렸다. 특히 올해 벌써 6개의 우승컵을 수확해 2001·2002년 박세리가 세운 한국 선수 시즌 최다승 기록(5승)도 갈아치웠다.

우승 상금 58만5000달러(약 6억6600만원)를 받아 시즌 상금 200만 달러를 돌파한 박인비는 상금 부문과 세계랭킹, 올해의 선수 포인트 등에서 1위 자리를 확고히 다졌다. 남은 경기에서 획득하는 우승컵은 모두 신기록으로 이어진다.

박인비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2011년 유소연, 2012년 최나연까지 3년 연속 US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는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경기 후 박인비는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와 두부조림을 먹었다"며 "한국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한국 음식은 큰 힘이 된다"고 활짝 웃었다. 이어 "스윙코치이자 약혼자에게 심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어머니 김성자(50)씨와 남자친구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

AP통신은 '박인비가 미쳤다'는 제목과 함께 "US여자오픈이 까다로운 코스에 퀸 위치까지 더욱 어렵게 바뀌었으며 선수들을 괴롭혔지만 박인비는 미동없이 역사를 향해 걸어갔다"고 그의 흔들림 없는 플레이를 높이 평가했다.

ESPN·뉴욕타임스·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들도 일제히 "박인비가 세계랭킹 1위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칭찬했다.

한편 2011년 이 대회 우승자인 유소연은 이날 타수를 잃지 않아 3위(1언더파)에 올라 한국 선수가 우승, 준우승, 3위까지 상위권을 점령했다.

/이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데이터 2배 제공' KT의 반격

LTE-A 본격 서비스 앞두고 '매달 3만6000원 혜택' 파격 기선제압

초고속 이동통신 경쟁에서 뒤진 것으로 평가받던 KT가 대반격에 나섰다.

속도가 2배 빠른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 대전이 임박한 가운데 KT가 경쟁사보다 먼저 데이터 용량을 2배로 주는 파격 혜택으로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매달 3만6000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어떤 대응책을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KT는 10월 31일까지 음성 무제한 요금제인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와 모두다올레 요금제(3G·LTE) 이용 고객에게 데이터를 2배 늘려준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데이터 공유 제도인 'LTE 데이터셰어링'을 이용하면 태블릿 PC, 스마트 PC 등 다른 무선 기기에서 주기로 받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KT는 "LTE-A 서비스 등 2배 빠른 LTE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LTE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고객들에 더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데이터량을 2배 많이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를 포함해 멤버십 포인트, 콘텐츠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등을 2배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편 표현명 KT 사장은 이날 본격적인 LTE-A 서비스를 3사가 비슷한 시기에 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7일 상용화에 나선 SK텔레콤, 이달께 서비스를 시작하는 LG유플러스가 전국망이 아닌 일부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는 논리에서다.

표 사장은 "주파수 집적 기술(CA)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먼저 발표한 것뿐이지 어떤 통신 사업자든 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SK텔레콤·LG유플러스)도 아직 전국 서비스 안 되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인 만큼 큰 차이 없다"고 밝혔다.

KT는 900㎒ 대역 전파 간섭 문제를 해결한 뒤 9월부터 LTE-A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결혼 꽃장식만 2000만원

서울시내 특급호텔 예식상품 끼워팔기 제동

서울 시내 특급호텔이 관행적으로 끼워팔던 꽃장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가 1일 발표한 서울 시내 특급호텔 21곳의 예식 상품 판매 관련 조사 결과(1월 기준)에 따르면, 인터컨티넨탈코엑스 등 12곳은 꽃장식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고 협력 업체나 호텔 내부 직영점을 통해서만 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21개 특급호텔의 꽃장식 평균 가격은 712만7000원이며, 가장 비싼 곳은 쉐라톤그랜드워커힐로 2057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호텔 예식 평균 비용은 식사(1인) 8만7000원, 와인(1병) 6만7000원, 무대 연출 259만2000원, 대관료 1840만원으로 조사됐다. 식사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신라호텔(13만4000원)이었고, 무대 연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은 쉐라톤그랜드워커힐(550만원)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밀레니엄힐튼 등 10개 호텔은 예식상품 견적서에 필수 항목 표시를 삭제했다. /한지원기자 kaean@

단속 40분만에 첫 경고장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이른바 '문 열고 냉방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 첫날인 1일 서울 중구청 단속 공무원들이 명동거리에 문을 연 한 매장에 경고장을 통부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 꽁꽁 '300만원의 힘'

단속 첫날 서울 명동매장 대부분 문 닫고 에어컨 가동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첫날인 1일 효과가 나타났다.

이날 서울 중구 명동의 업소들은 계도 기간과는 달리 대부분 매장 문을 닫은 채 영업했다.

한 화장품 매장 직원은 "그동안 자동문을 작동하지 않고 열어놓은 채 영업했지만 쇼윈도와 유리문을 깨끗이 닦아 매장 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장의 직원은 "과태료도 돈인데 안 지킬 이유가 없다"며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규정을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옷가게와 화장품, 신발 매장 등이 밀집한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명동예술극장까지의 거리와 롯데백화점 맞은편에서 명동성당까지의 명동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매장들 중 문을 열어놓은 곳은 몇몇 업소에 불과했다. 반면 몇몇 업소들은 경고 조치를 받은 뒤 불평을 하기도 했다.

한 액세서리 매장 관계자는 "좀 전에 냉방기를 끄고 환기를 위해 문을 열었는데, 일지마자 구청 공무원이 경고를 줬다"면서 "이런 식으로 영업하면 매출하고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고 걱정했다.

이에 단속반 관계자는 "계약 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속한 매장이라 문 개폐가 아니라 26도보다 낮은 실내 온도에 따라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을 열고 비닐 커튼을 친 채 냉방기를 가동한 한 매장 관계자는 경고를 받자 "비닐 커튼을 내렸으니 문을 닫은 것과 같지 않으냐"고 따졌다.

한편 실내 온도 및 개문 냉방 영업은 앞으로 8월 30일까지 단속을 벌여 2회 이상 위반 매장에는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동호기자 ● eoon@metroseoul.co.kr

뉴스&뉴스

놀이터·어린이집 마감재 납 함유량 관리강화

●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 재료의 납 함유량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료나 마감재에 포함된 납 함유량은 0.06%를 넘어서는 안 된다. /김유리기자

건보료 부과기준 소득중심으로 단일화 본격논의

● 직장인과 자영업자로 구분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모든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순 실무기획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유리기자

속초해수욕장 개장 1일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먼저 개장한 속초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의무채용 청년연령 34세로 확대

●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무고용제의 나이 상한이 만 29세에서 34세로 상향돼 곧 입법예고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된 채용 대상에 대한 30대 미취업자들의 불만을 고려해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박능호기자

신고리 3·4호기 제어봉 전송기 등도 성적서 위조

신고리 3·4호기에 사용된 부품 등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을 사용한 흔적이 추가 발견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모(36·구속) 새한티이피 차장이 2010년 신고리 3·4호기에 납품된 제어봉 위치 전송기와 어셈블리 등의 시험성적서 6부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안전성(Q) 등급 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 오모(50) 대표가 회삿돈 2억2000만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종리기자

美 911에 "총기 난사" 장난전화

전주 20대 철없는 행동에 장갑차 출동 등 미국 발칵

"철부지" 20대가 국내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미국 911 신고센터 등에 테러 위협 등 협박 전화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미국 911 신고센터 등에 장난으로 협박 전화를 한 혐의(업무 방해)로 이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10시45분께 전북 전주 자신의 집에서 미국 뉴저지주 911 신고센터에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전화를 해 학교를 폐쇄하도록 하는 등 미국에 수차례 장난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을 스웨덴계 미국인이라고 속인 뒤 이들에 걸쳐 수차례 협박 전화를 했다.

미국 경찰은 즉시 현지에 수사본부를 설치, 주변 학교 8곳을 4시간 동안 폐쇄했으며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헬리콥터 등 대테러 장비를 투입해 검문검색을 했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3일 오후 9시 40분께 미국 뉴욕경찰서에 전화해 "10살인 내 아들을 죽였으며 당신과 당신 가족도 살해하겠다"며 현지 경찰관을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전주의 한 백화점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발신번호를 미국 전화번호로 조작할 수 있는 무료통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장난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팀으로부터 전화 발신지가 한국으로 추정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재 육군에서 군 복무 중인 이씨를 붙잡았다. /김유리기자 grace@

하루 피로 날려주는 튜터의 깜짝퀴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작이 좋다' 캠페인 ⑤ 미디어영상학과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는 신·편입생들이 입학 후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튜터 제도가 있다. 석·박사들로 구성된 튜터들은 학사 일정을 안내하고 전국 49개 캠퍼스에서 직접 강의하며 학생들을 지원한다. 메트로신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함께 '시작이 좋다!' 캠페인을 통해 학과별 튜터를 소개한다.

김도경(33) 튜터가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 퀴즈를 낸다.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고 현실을 인식함에 있어 영향을 받는 효과는 무엇인가? 1)문화 효과 2)현실구성적 효과 3)배양 효과 4)정치계기 효과"

학생들은 순식간에 연달아 "2번 아슬슬 헷볼이", "음, 모르겠지만 2번 같음"이라며 답을 단다. 방송대 미디어영상학과의 튜터와 학생 간의 게임과 같은 퀴즈 시간이다. 야근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오며 문제 풀이에 참여하기도 한다.

207명을 담당하고 있는 김 튜터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가끔 퀴즈 풀이를 통해 학습을 한다"며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고 문제를 계속 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튜터 활동에 대해 묻자 "학교 생활 적응 도우미라고 보면 된다"며 "튜터 제도의 혜택을 1년 동안 받는 학생은 1학년 신입생과 2, 3학년 편입생이다. 전공 학습에 대한 도움과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미디어영상학과 김도경 튜터와 함께 SNS를 통해 퀴즈 문제 풀이를 하고 있다.

"오늘은 어떤 문제 나오려나" 학습 흥미유발 효과
학교생활 다양한 조언 나만의 가정교사 역할도

전공과목에 대한 학습 도우미 역할은 기본이자 필수다.

그는 "튜터는 담당 학과의 석사 이상 전공자다. 튜터 사이트에 전공과목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퀴즈도 내고 월 1회 오프라인 수업을 개설해서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학생들과의 소통은 '밴드'가 가장 많고 문자, 튜터 사이트, 전화, e메일 순으로 활용한다.

문자는 적려니 급하게 알릴 일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한다. 튜터 사이트에선 일대일 상담 게시판을 통하거나 Q&A 게시판을 이용한다. 그는 "일대일 상담 게시판은 학생과 튜터만 볼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학사 관련 고민이나 일반적인 질문들이 많다"며 "아무래도 고령의 학생들에게는 거의 전화를 통해 소통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기 초에는 튜터 제도에 대해 많이들 물어본다"며 "학생들에게 배려를 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물 제출과 중간시험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도 많다"고 말했다.

1학년 서배성(28)씨는 "튜터 선생님이 신입생들에게 편안하고 빠르게 양질의 정보를 알려줘서 도움이 많이 됐다"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학습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정리해놓아 도움이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대는 개교 41년 만에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 기간은 17일까지다.

/배동호기자 elevan@metroseoul.co.kr

21세기 정보사회 맞춤인력 양성

■ 미디어영상학과는

방송, 광고, 멀티미디어, 저널리즘, 영화 분야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21세기 정보사회의 핵심 분야인 미디어 영상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미디어 이론-방송·광고·저널리즘-멀티미디어-영화이론 분야의 전공과목을 개설, 각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도록 한다.

전국의 지역 대학에 디지털 촬영 및 편집 장비를 갖춰 학생들의 실습이 가능하다.

이론과 실기 교과목이 구분되어 있어 선택적 수강이 가능하다.

졸업 후에는 방송사·신문사, 독립 프로덕션·광고홍보대행사, 웹 디자이너·영화제작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

문의: 02)3668-4710
mas.knou.ac.kr

송도해수욕장 타이빙대 복원 송도해수욕장의 명물 해상 다이빙대가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을 맞아 28년 만에 복원됐다. 서구는 오는 2일 오전 11시 송도해수욕장 동쪽 백사장 간이무대에서 해상 다이빙대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위부터 1950년대 해상 다이빙대와 28년 만에 복원돼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다이빙대. /서구 제공

국제광고제 '창조스쿨' 운영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가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창의력 개발을 위해 세계 광고계 리더들이 강사로 나서는 '창조스쿨'을 운영한다.

창조스쿨은 광고제 기간인 다음 달 22~24일 벡스코 컨벤션홀 2층에서 열린다.

제일기획 김홍탁 마스터, FIS에드 황보현 최고광고제작책임자, 지난해 미스터피자 광고로 세계 주요 광고제의 상을 휩쓴 애딕트 미디어 필름즈(Addict Media Films)의 존 박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부산국제광고제 홈페이지(www.adstars.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e메일(nje0706@adstarsfestival.org)로 접수하면 된다.

시, 에너지 절약 선발대회 3위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1회 에너지 절약 우수지자체(절전가왕)' 선발대회'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3위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력 위기 극복과 에너지 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1인당 가정용·서비스용·공공 부문 전기 소비 증감률, 절전 홍보, 절전 계도 단속 활동, 혁신 시책 운영 등 다양한 지표를 적용해 평가를 진행했다. 부산시는 각 평가 지표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둬 광주시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총 괄 관 세 인 남 궁 호
사장 겸 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부산지사장 취재 김 수 준
서울광고문의 (02)721-5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8-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1999년 1월 3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166

도약하는 미래 100년 싹틔울 희망의 씨앗 심는 의미 형상화

부산 '타임캡슐' 디자인 확정

부산시는 직할시 승격 50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시민공원 내 매설 예정인 타임캡슐과 지상부 기념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을 확정했다. (사진)

시는 지난 6월 20일 직할시 5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 디자인을 선정했으며 6월 26일 공공조형물심의회를 거쳐 최종 디자인을 정했다고 1일 밝혔다. 타임캡슐 명칭은 '희망부산 100년 타임캡슐'로 10월 제34회 시민의 날 행사 시 매설할 예정이다. '미래 100년의 씨앗'이란 타임캡슐의 부제에 맞춰 타임캡슐 디자인은 매설지인 부산시민공원에 도약하는 미래 100년을 싹 틔울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의미로 형상화했다.

매설지 지상부에 설치될 기념 조형물은 '미래를 여는 항적'으로 동북아 해양 수도로 비상할 역동적인 부산의 모습을 요트 돛으로 형상화해 제작하게 된다.

이번에 매설되는 타임캡슐에는 2013년 현재 부산 시민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자료들을 담아 100년 뒤 후대에게 문화유산으로 남겨줄 예정이다.

타임캡슐에 담아 보존할 수장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모 등을 통해 수집했으며, 최종 목록 선정은 7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매설된 타임캡슐은 100년 후인 2113년 10월 5일 개봉된다. 문의 051)888-1516

/허정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피크타임 전력 줄이는 '이~오 쉬어요' 캠페인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피크타임 절전 실천 부산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협약식을 갖고 있다. 이들 단체 소속 회원들이 전력 사용 피크타임인 오후 2~5시 전력 사용을 줄이자는 '이~오 쉬어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물가 5개월째 1%대↑

부산지역 소비자물가가 5개월째 1%대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1일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역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1% 상승했다.

이는 지난 2월 1.7%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5개월째 1%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물가 안정세를 이어간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148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0.2% 올랐다.

특히 지난해까지 물가 상승의 주요인이던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 등 신선식품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주택·수도·전기·연료가 지난해보다 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외 식료품과 의류·신발, 보건, 통신 등은 대부분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영산대 전문조리인 양성 메카 '우뚝'

관광대학원생 3명 조리기능장 시험 합격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가 '2013년 정기 기능장 53회 실기시험'에서 관광대학원 조리예술전공 재학생들(최지미·백진영·염정수)이 조리기능장시험에 합격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영산대는 이번 기능장 시험의 최종 합격자 28명 가운데 3명이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전문 조리인 양성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됐다.

대한민국 조리기능장(Master Craftsman Cook)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공인의 조리기능 자격시험으로 합격률이 5~10%밖에 되지 않으며 한식과 양식, 일식, 중식, 복어 등 조리 분야 전반에 관한 이론은 물론 최상급 숙련 기능까지 갖추어야 취득이 가능한 어려운 시험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에 조리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세 명의 학생들은 모두 영산대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로 백진영씨와 염정수씨는 지난 2011년 2월에 호텔경영학과를, 최지미씨는 2012년 2월에 한국식품조리학과를 각각 졸업했다.

한편 대한민국 조리명장 4호인 강현우 명장과 8호 서정희 명장까지 포함해 영산대는 국내 8명에 불과한 조리명장 가운데 2명이 강단에 서고 있다.

"지역경제 하반기 회복 기대 대내외 변수 탓 어려움 예상"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

부산 경제는 올 하반기 완만한 회복이 기대되지만 대내외 변수 때문에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1일 '최근 국내외 경제 흐름과 지역의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하반기 부산 경제를 이같이 전망하고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22일 미 연방준비제도(Fed)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의 영향으로 세계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하반기 국내 경제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정부 지출 확대와 기저 효과 등으로 상반기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국내 경제는 내·외수 부진 탓에 회복이 미약했다.

부산 경제의 하반기 대내외 변수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엔저 지속, 중국 정부의 긴축 가능성, 대북관계 경색, 부동산 침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노사 분규 등이 꼽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필 연구위원은 "대내외 변수에는 부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이 더 많다"며 "이런 불확실한 여건 때문에 부산 경제는 하반기 완만한 회복이 기대되지만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북항재개발 핵심사업지 '오수 몸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옆 초량천·부산천서 유입
"예산 탓 2020년 후 착공 가능"…이미지 훼손 우려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북항재개발사업 핵심 지역에 인근 하천 2곳의 생활 오수가 그대로 유입돼 대책이 시급하다.

하천의 오수와 빗물을 분리하는 관거를 새로 설치하는 등 정비 사업이 시급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손도 대기 어려운 실정이다.

1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현재 기초 공사가 한창인 북항 3부두와 4부두 사이에 들어서는 새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바로 옆에 초량천과 부산천의 생활 오수가 흘러들어오고 있다.

여객터미널 공사 현장은 이들 하천의 마지막 지점인 데다 오수차집시설의 기능이 떨어져 평소에도 악취가 심한 형편이다.

비가 많이 오면 오수가 넘치기 일쑤여서 여객터미널이 완공돼 운영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바닷길 관문인 부산항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으로 걱정된다.

문제는 초량천 분류 관거(0.23㎞) 설치에만 1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돼 착공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점.

BPA는 부산시에 초량천과 부산천의 빗물 오수관 분리 등 하천을 정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BPA의 한 관계자는 "부산시에서 재정 여건 때문에 당장은 공사하기가 어렵고 먼저 기존 오수차집시설을 정비한 뒤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수년 안에 공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어른 시일 내 두 하천의 빗물 오수 분류 관거를 설치해 북항재개발지역으로 오수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예산이 워낙 많이 들고 다른 지역 하수 관거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려 2020년 이후에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착공이 불가능해 내년 11월께 문을 여는 새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은 수년간 생활 오수 때문에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연합뉴스

남해안 멸치가 가득 1일 경남 통영시 사량면 상도와 하도 앞바다에서 잡힌 멸치를 멸치가 그물 속에 가득하다 /연합뉴스

경남 이번주 내내 장맛비 내린다

경남 창원기상대는 2일부터 장마전선이 활성화돼 경남지역 대부분 비가 내릴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비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활성화하면서 다음날 아침 경남 서부지역부터 시작돼 오전에는 경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은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30~80㎜다.

창원기상대는 "북서쪽으로부터 접근하는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북상한 장마전선이 6~7일 남부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시간당 40㎜ 이상의 국지성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창원기상대 관계자는 "예년 장마전선은 강수대의 남북 폭이 좁아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다"며 "비와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해양환경오염 26건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영환)는 지난달 10~21일 해양환경 저해 사범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오염 행위 8건, 의무규정 위반 7건, 기타 11건 등 총 2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이 기간 오염 우려가 높은 선박 및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과 함께 지도 점검을 펼쳐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이 중 3개월간 오수 7.8㎥를 무단으로 하천을 통해 해양에 배출한 업체와 벙커A유를 바다에 흘리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잠적한 선박을 끈질긴 조사 끝에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해양환경 저해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해양오염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선주조 '예 괜찮네' 감성광고 전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즐거워예 → 예 명칭 변경

부산 향토 기업 비엔그룹 대선주조(주)가 이색적인 새 TV 광고를 선보였다.

대선주조는 '괜찮은 부산 소주'를 콘셉트로 한 '예 괜찮네' 시리즈 광고 네 편을 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보낸다.

'예 괜찮네' 광고는 기존의 제품 '즐거워예'의 명칭이 이날부터 '예'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이름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각인시키고자 기획됐었다.

광고 속에서 '예'는 제품과 사람 '예'를 동시에 가리키며 내용상으로는 '예 괜찮다'라는 카피가 강조돼 술자리에서 있을 법한 일상적인 소재를 짧은 이야기로 구성했다.

남자의 마음(시진) '여자의 마음' 편은 여성에게 바라는 로맨틱한 모습을 풋풋하게 표현했고, '팀장의 마음' 편은 회사 동료 간에 느낄 수 있는 소소하고 훈훈한 이야기를 담았으며 '장인의 마음' 편은 예비 사위를 독대한 자리에서 상대의 면면을 살피는 아버지의 심정을 나타냈다.

대선주조는 술자리의 모리한 분위기만 강조하는 대부분의 소주 광고의 공식에서 벗어나, 평범하면서도 감성을 자극하는 소재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진진한 마음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대선주조 박진배 대표이사는 "누구에게나 있게 와 닿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내 서정적인 소주 광고를 지향했다"며 "광고의 배경을 광안대교 야경으로 삼은 것도 부산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민주공원 예산삭감은 민주정신 죽이기"

지역 시민사회단체 반발

부산시의회가 민주공원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전 시의회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민주공원 예산 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부산의 자긍심과 민주정신 죽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가 민주 세력에 굴종을 강요하고 민주정신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도 이날 이사 연동 명의로 예산삭감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담은 장문의 항의서한을 김석조 의장에게 전달했다.

‘선상학교’ 교복은 구명조끼

中 산둥성 초등학교 비만 내리면 침수되자 강물 위 조각배로 학교 옮겨 수업

metro HongKong

중국 산둥성 웨이산(微山)현에는 아주 특별한 초등학교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배로 물 위에 떠있는 웨이시(微西)초등학교.

이 선상(船上) 학교의 선생님은 단 두 명뿐이다. 왕성언과 차오구이잉 부부는 1977년부터 학교를 지키며 아이들을 가르쳐왔다.

반은 예비초등학생반과 1·2학년반 두 개. 학생은 34명이 전부다.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멀리 떨어진 기숙사 초등학교로 간다. 원래 학교 건물은 2004년 수재가 발생하면서 물에 잠겼다. 매년 발생하는 홍수에 대비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를 배로 옮기게 된 것.

학교만 배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물고기를 잡고 운반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배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따라서 옆집에 놀러 갈 때에도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웨이시초등학교 학생들은 모두 이 마을 토박이여서 배의 노를 젓는 일은 식은 죽 먹기다.

이곳 아이들은 등교할 때에도 놀 때에도 모두 구명조끼를 입는다. 가난한 탓에 제대로 된 구명조끼가 없어 아이들은 모두 스티로폼으로 만든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

선상 학교 옆에는 조그만 공터가 있다. 이곳이 바로 아이들의 놀이터다. 시설은 열악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이곳은 아이들의 천국으로 변한다.

수업은 오후 3시에 마친다. 2시 반쯤 되면 아이들의 부모가 배를 몰고 학교 주변으로 모여든다. 바빠서 부모가 제시간에 오지 못하면 아이들은 대여섯 시까지 학교에 남아있거나 교사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일을 늦게 마친 부모들은 선생님 집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온다.

낚시를 하거나 양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왕 선생의 집은 육지에 있다. 그는 "예전에는 월급이 어민 몇 하루 벌이보다도 적어 회의감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하다 관두는 성격도 아니어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아무도 선생님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며 "가장 큰 바람은 선생님들을 더 채용해 3·4학년반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조선미 기자

Ny studie: Ja, föräldrar lever genom sina barn

metro USA

이루지 못한 꿈 자식 통해 실현 세상 부모 똑같네

많은 부모가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실현하려 한다. 널리 퍼져있는 이 같은 부모의 경향을 증명해주는 연구가 최초로 진행됐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의 브래드 부쉬먼 교수는 73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부모가 자식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기보다 얼마나 자식을 그들의 일부로서 생각하는지 알게 됐다고 한다.

부쉬먼 교수는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또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자식이 이따금 무언가 성취하면 자신이 이룬 것처럼 받아들인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모는 자신이 과거에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좌절과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리학자 스티나 윈드스트룀은 최악의 경우 부모의 이러한 기대가 자식의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인이 원하는 바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되는 순간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나가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기에 아이들은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헬레나 레베년은 13세 딸 카사를 데리고 지난해 '엄마와 꼬마 모델'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딸을 모델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베년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딸에게 성공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후회된다고 했다.

레베년은 "더는 카사를 압박할 수 없다. 카사는 모델 일을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야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카사도 주체적 인간이고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세핀 스텐백 기자

정리=김동러 인턴기자

물가 상승률 외환위기 직후 수준 하락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일본식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상승했다. 지난 5월에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월(0.8%) 이후 13년8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후 이 추세를 그대로 이어갔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유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내린 덕분이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1.4%,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가 1.3%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아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보경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3% 내외에 머물고 있는 등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며 "하반기에는 기저 효과 때문에 물가 상승세가 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market index (1일)

지표	값	변동
코스피	1855.73	(-7.58)
코스닥	527.81	(+8.75)
금리	2.90	(+0.10)
환율	1135.50	(-4.00)

뉴스&뉴스

보험 해지율 4년만에 상승

●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 효력을 잃거나 고객이 해지한 보험계약 해지율이 금융위기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처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계약 효력 상실 해지율(일반 계정 기준)은 지난 2008년 12.4%를 기록하고서 2009년(11.2%), 2010년(10.3%), 2011년(9.6%)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2012년 9.9%로 처음 올랐다. 경기 침체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조한진기자

펀드 개인 투자비중 반토막

● 국내 펀드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6년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1일 금융투자협회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펀드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판매잔고는 113조3201억원(지난 4월말 기준)으로 전체 309조8454억원의 36.6%를 차지했다. 국내 펀드 시장이 활황을 보인 2007년에만 해도 개인의 비중은 57.4%에 달했으나 현재는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일반 법인과 금융기관의 비중은 각각 15.8%(48조8908억원), 47.7%(147조6345억원)였다. /김현정기자

주식거래 스마트폰 비중↑

●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스마트폰 등 무선 단말을 통한 거래대금 비중은 8.72%로 지난해 같은 기간(7.36%)보다 1.36%포인트 높아졌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이용하는 영업 단말의 거래대금 비중도 46.90%로 지난해 동기(46.12%) 대비 0.78%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반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거래대금 비중은 30.95%로 35.83%였던 지난해보다 4.88%포인트 낮아졌다.

코스닥 시장은 증감폭이 더 컸다. 모바일 거래 비중은 지난해 14.03%에서 올해 16.54%로 2.51% 상승했고, 영업단말 거래는 14.70%에서 18.32%로 3.62%포인트 높아졌다.

HTS 거래 비중은 61.92%로 지난해 68.44%에 비해 6.52%포인트나 낮아졌다. /박상훈기자

위기의 CJ, 손경식회장 체제로

'이재현 회장' 이전 그룹 지휘 경험…'총수 리스크' 최소화할 적임 평가

회장 구속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휩싸인 CJ그룹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다.

메트로신문이 지난달 26일자(10면)에 보도한 대로 CJ는 손경식(사진) 그룹 회장 중심의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CJ는 올해를 '글로벌 원년'으로 삼아 해외 사업을 축으로 그룹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대키로 한 상황에서 총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점쳐졌던 이미경 체제 대신 '손경식 체제'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손 회장은 이 회장이 경영 전면에 등장하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 그룹을 진두지휘해왔기 때문에 안정성에서 큰 점수를 받고 있다. 또 그룹 내에서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의 어머니인 손복남 여사의 친동생이라는 점에서도 그룹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에 적임이라는 평이다.

하지만 총수 리스크로 인한 사업 차질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라이신 글로벌 1위 생산력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이던 중국 업체와 인수 협상이 중단됐고, 사료 사업도 중국과 베트남에서 최종 단계까지 진행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기로 예정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연례 해외 행사인 '글로벌 콘퍼런스'도 연기됐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매출 100조원 달성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며 공격적으로 진행되던 해외사업 진출도 소극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출국금지'로 연이어 예정돼 있던 터키·중국·동남아시아·미국 등 해외 출장이 모조리 취소되면서 사업적 손실은 물론 기업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다른 해외 국가에 '제4의 CJ'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중소기업 '꿈의 증시' 닻 올렸다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가 개장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내빈들과 상장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코넥스 시장은 바이오(5개사), 반도체장비(4개사), 소프트웨어(3개사), 자동차 부품(2개사) 등 21개 상장사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

코넥스 첫날 '롤러코스터 신고식'

21개 '상장 1호' 기업들 4배 급등·하한가 희비 "벤처캐피탈 최대 수혜"

벤처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트이는 역할을 하기 위한 장내 시장인 '코넥스'의 출범 첫날 종목들의 희비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넥스의 최대 수혜는 벤처캐피탈사가 될 것으로 내다보며 시장의 성공 요건으로 낮은 거래 비용, 풍부한 유동성 등을 꼽았다.

코넥스 시장은 1일 오전 9시 개장 직후 거래 부진으로 21개 상장 1호 기업들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긴 11개사만이 시초가를 형성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티센시스템즈, 하이로닉, 스탠다드펌, 이잔엑스터 등을 중심으로 주가가 평가액 대비 4배 안팎으로 치솟고 해당 종목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들의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등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다만 장 마감이 가까워지며 경계 매물이 쏟아져 에프앤가이드, 웰앤케어비아오, 아진엑스텍 등이 장중 고점 행진에서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이날 증시 전문가들은 코넥스 개장의 최대 수혜자로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을 꼽았다. 신한금융투자 최석원 연구원은 "역대 정부의 벤처 관련법 제정이 있던 시기에는 창투사들의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며 "주요 5개 상장 창투사의 상대지수가 올 들어 26.8% 오르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게히로 시노자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중소기업금융 전문가는 코넥스의 성공 요건으로 "단순한 구조, 낮은 거래 비용, 높은 유동성"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문정기자 hjkim1@

제2금융도 이달부터 신규 연대보증 폐지

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이달부터 폐지된다.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동참하면서 120만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할부사, 리스사, 생·손보사, 보증보험 등 제2금융권도 이날부터 신규 연대보증을 금지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5월에 이미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기존에 연대보증으로 묶인 대출을 연장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예외 조항 역시 2017년까지 5년간만 적용된다.

이날부터는 비금융권인 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대형 내부에서도 신규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없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7월부터 사실상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됐다"면서 "그동안 연대보증은 금융사들이 애용했던 수법이지만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취업청년 30년새 반토막

5월 기준 382만여명…전체 취업자 중 15% 차지 '1983년의 절반'

한국 경제가 고령화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이 30년 새 반 토막 나면서 일터에서 젊은층이 점점 사라지는 중이다. 한때 희망을 주던 고졸 채용까지 시들해지면서 취업·연애·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에서 '일자리·소득·집·연애(결혼)·아이·미래(희망)가 없는 '육무세대'로 악화되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중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82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539만9000명 중 15.1%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1983년 5월의 31.5%(1530만8000명 중 482만8000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고용률도 마찬가지다. 5월 중 15~29세의 고용률은 40.1%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30년래 고점인 1995년 5월의 46.9%에 비해 6.8%포인트 낮다.

더 큰 문제는 인구 비중보다 취업 비중의 하강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30.4%에서 2010년 20.9%로 9.5%포인트 낮아지는 동안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의 비중(31.5→16.6%)은 14.9%포인트 감소했다.

게다가 청년층 상당수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있어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어려우면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투자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기 때문에 청년 고용은 점차 줄어게 된다"며 "당분간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업에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고졸 채용도 현 정부에 접어들면서 점점 시들해지고 있다"며 "삼포 세대를 넘어 육무 세대로 접어들었다는 젊은이들의 한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년 고용 할당제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재활용품 장난감으로 재탄생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3 사회적기업 박람회에서 어린이들이 재활용 장난감학교 '쓸모'를 체험하며 각양각색의 장난감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주머니 달린 피자… 두툼한 맛 좀 볼까 피자헛이 1일 서울 세종로 청계광장 인근에서 신제품 크라운포켓 피자를 선보이고 있다. 크라운포켓 피자는 주머니에 가득 담은 고구마무스와 크림치즈, 두툼한 베이컨 스테이크와 구운 통마늘이 더해져 진하고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연합뉴스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3.3㎡ 3000만원 밑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3.3㎡당 매매 가격이 두 달 만에 3000만원 선 밑으로 내려갔다.

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재건축 매매 가격은 0.79%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매매 가격이 1.03% 하락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1.23% 떨어지며 서울 재건축 하락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5월 3015만원 선이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매매 가격은 6월에 2965만원으로 2개월 만에 3000만원 선을 밑돌았다.

김미선 선임연구원은 "재건축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4.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지난달 말 종료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침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석기자 hkim10

'갤럭시 매장'서 '베가'도 판다

'팬택 3대 주주 된 삼성 상생 차원 영업망 공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공식 판매하는 매장에서 팬택의 '베가' 단말기도 살 수 있다. 팬택의 3대 주주인 삼성이 상생 차원에서 영업망을 공유하는 셈이다.

1일 삼성전자와 팬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국의 삼성 모바일 제품 대리점인 삼성리빙프라자 내 삼성모바일샵에 '베가존'을 설치해 이날부터 '베가 아이언'과 '베가 넘버6', '베가R3' 등 제품을 진열·판매한다.

이번 양사의 협력은 팬택이 먼저 요청하고, 삼성전자가 상생 협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22일 팬택에 530억원의 지분 투자를 통해 정보기술(IT) 분야 상생 협력 모델을 선보인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이번 협력으로 팬택은 삼성 유통망을 활용해 그동안 약하다고 평가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판매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팬택은 휴대전화와 액세서리를 유통하는 자회사 라츠 매장을 200여 개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유통망 규모가 다소 작았다.

또 라츠 매장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에서는 이동통신사 매장을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팬택의 라츠 매장에서도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훈기자

뉴스 & 뉴스

모바일 내비 'T맵' 터치 힘들땐 음성명령 하세요

● 국민 내비' T맵'이 운전자의 말을 알아듣는다.

SK플래닛은 모바일 내비게이션인 T맵을 터치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음성 명령 기능을 추가한 'T맵 4.1'을 1일 출시했다.

음성 인식 기능에는 경로 검색, 주행 안내, 경로 변경, 주행 종료를 포함해 사용 빈도가 높은 40가지 명령어가 들어가 있다.

음성 명령 기능을 켜려면 T맵의 어느 화면에서든 '티맵아' 또는 '내비야'라고 부르면 된다. 3초 안에 원하는 기능을 말하면 해당 기능이 작동된다. 또 T맵 화면 안에서 수신된 문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지도 예약 내려받기, 표지판 음성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박상훈기자

국내 유턴 기업에 외투기업 임대용지 입주 허용

● 정부가 외국으로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복귀 기업(U턴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전용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지역 산업용지를 최대 50년간 임대할 수 있다. 임대료는 토지 가액의 1%로 매우 저렴하다. /이국명기자

한국서 짐 싸는 日미쓰비시…전시장 3곳 폐쇄

●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의 한국 시장 철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자동차의 국내 공식 수입원인 CXC는 최근 서울 반포와 역삼동, 경기도 분당에서 운영하던 미쓰비시차 전시장 3곳을 모두 폐쇄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미쓰비시의 한국 철수설까지 도는 상황이다. CXC 관계자는 "철수는 사실이 아니다. 전국의 서비스 네트워크도 8곳 모두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XC는 재고 소진에 따른 잠정적인 영업 중단이라는 입장이다. CXC는 다음 달 중 공식적으로 판매를 종료할 방침이다. /박상훈기자

국내 없던 '61~75세 맞춤' 암보험

라이나생명 10년 갱신형 '무배당 실버암보험' 출시

글로벌 보험기업 시그나(Cigna)의 한국법인인 라이나생명보험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 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제외)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080-951-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건강iN
www.nhis.or.kr
건강검진은
평~생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 40세와 만 66세
해당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
암검진
영유아검진
4·9·18·30·42·54·66개월
건강검진은 여러분이 납부하신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nhis.or.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가방 잘못 말리면 '오그랑'

장마철 가죽제품 관리요령…젖은 신발엔 신문지 넣어 그늘 건조

2일부터 굵어지는 장맛비로 이번 주는 '뽀송' 습기와의 전쟁이 한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물에 약한 가죽 제품은 비를 맞게 되면 잘 마르지도 않을뿐더러 변색되거나 곰팡이가 슬기도 한다. 비싸게 주고 산 가죽 구두와 기방의 '생명 연장'을 위해 금강제화가 관리 비법을 조언했다.

장마철 출근길엔 손수건을 한 장 챙겨보자. 가죽 가방이 비에 젖으면 물기가 스며들기 전에 마른 천으로 가볍게 두드려 닦아내는 게 우선이다. 이어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말려야 한다. 빨리 건조시키려고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을 쐬었다간 가죽이 오그라들 수 있다.

습기 때문에 가방에 곰팡이가 피었을 땐 충분히 말린 뒤 희석시킨 암모니아 용액을 타월에 살짝 묻혀 닦아낸다.

또 보관시 비닐 커버를 씌우면 통풍을 막아 가방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천으로 된 더스트백 안에 넣는 것이 좋다. 가방 가까이 제습제를 놓았다간 오히려 가방 자체의 수분을 빨아들여 모양이 바뀔 수 있다.

비 오는 날 신고 나간 가죽 구두에 물이 스며들었다면 신문지를 넣어 그늘에서 말린 뒤 가죽 전용 크림을 발라 보관한다. 신발장에는 제습제나 신문지를 깔고, 일주일에 한번은 신발장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좋다.

눅눅한 날씨로 제품에서 냄새가 날 땐 레몬 조각이나 녹차 티백, 원두커피 가루 등을 신발 속에 넣으면 탈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권보람기자 kwon@

홈쇼핑서 띄운 상품 파는 온라인몰 '대박'

TV 홈쇼핑의 틈새시장을 온라인 쇼핑몰이 노리고 있다. AK몰은 1일 홈쇼핑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상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AK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홈쇼핑에서 방영된 '슈퍼 엑스바이크'는 올해 1월부터 AK몰에서 판매를 시작해 매달 평균 1100대, 매출 1억5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간코치 로베라 헬스클럽' 또한 업계 최저가인 5만6000원에 판매하자 지난 6월 매주 72~373%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AK몰 관계자는 "TV 홈쇼핑 방송일과 방송 다음날 매출이 평소보다 10배까지 급증한다"며 "홈쇼핑 방송 시간을 놓쳤거나 방송을 본 뒤 더 저렴한 곳을 찾는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보람기자

아웃도어 추억의 모든것 '아웃도어스'

1000개 브랜드 입점 온라인몰…캠핑·승마 등 체험 인기

국내 캠핑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아웃도어 전문 온라인 쇼핑몰 '아웃도어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11년 10월에 문을 연 아웃도어스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아웃도어 인기에 발맞춰 패션과 기능 정보 제공뿐 아니라 등산, 캠핑, 스포츠, 골프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필요한 모든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아웃도어 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아웃도어스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연 2회 '캠퍼워켄드' 행사를 진행 중이다. 100% 고객 가족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문화 체험 이벤트로, 올해는 캠핑과 승마 체험을 기획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웃도어스 관계자는 "캠퍼워켄드는 당초 캠핑 붐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됐지만, 캠핑뿐 아니라 일백등반, 승마까지 안전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아웃도어를 중심으로 온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련된 아웃도어룩을 제공하고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커뮤니티를 운영, 고객이 직접 참여해 전해주는 여행 후기,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각종 아웃도어 노하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웃도어스는 온라인 패션 유통 기업 브라이씨클이 운영하고 있으며, 입점 브랜드만 1000여 개에 달한다. 문의: www.outdous.com

/박지원기자

뉴스 & 뉴스

골드윈코리아 '영원아웃도어'로 사명 변경

● 노스페이스, 에이글 등을 국내에 전개하는 아웃도어 전문기업 골드윈코리아가 사명을 주식회사 영원아웃도어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골드윈코리아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스키 브랜드 이미지가 강했던 기존의 골드윈코리아 사명을 영원아웃도어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YOUNGONE OUTDOOR CORP (주)영원아웃도어

에이블씨엔씨 체코에 미샤 1호점 오픈 '화제'

●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지난달 25일 체코 브르노에 미샤 1호점을 열었다.

브르노는 체코 제2의 도시로 수도 프라하에서 남동쪽으로 약 180㎞ 떨어진 산업·문화의 중심지다. 미샤 측은 체코 진출을 계기로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해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스포츠 브랜드 미즈노 한국지사 설립

● 일본 스포츠용품 브랜드 미즈노가 지난달 28일 한국 지사인 미즈노코리아를 설립했다. 미즈노코리아 대표직은 지난 20년간 미즈노 국내 총판을 담당했던 덕화스포츠의 김창범 대표가 맡았다. 미즈노코리아는 앞으로 국내 환경에 최적화한 제품을 내놓고 영업 채널을 확장할 계획이다.

농심 켈로그 신임 사장에 김진홍 전무 선임

● 농심 켈로그는 신임 사장으로 김진홍(사진) 전무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사장은 1999년 켈로그에 입사해 켈로그 일본과 한국의 마케팅 총괄, 켈로그 동남아시아 지역 사장을 역임했다.

김 사장은 "전 세계 시리얼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시리얼 기업으로 다양한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생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강술래 '애비뉴Q' 티켓 쏜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여름맞이 건강먹거리 빅세일' 행사를 벌인다.

온라인 쇼핑몰(www.sullan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인기 메뉴로 구성된 바캉스세트(한우 불고기900g+강강양념 8대+한돈양념500g+돼지양념 500g)를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기력 보충에 좋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600㎖ 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 5팩·10인분)는 2만2000원에 30% 할인 판매한다.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칠링한우떡갈비'(3세트)와 아미노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허약 체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 한돈너비아니'(3세트)도 각각 30% 할인된 4만2000원과 2만5200원에 판매한다.

상계점은 이달 11일까지 매장에서 구이 메뉴(술래·강강 왕양념갈비, 한우모듬구이)를 시키면 한우 불고기를 한돈 또는 돼지양념구이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나갈 때 주문한 인분 수만큼 포장해준다.

고양 능곡농원점도 이달 5일까지 매장에서 한돈 또는 돼지양념구이를 먹으면 나갈 때 주문한 인분 수만큼 돼지양념구이를 포장해준다.

이달 말까지 강강술래 홈페이지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10년 만에 한국 최초 내한 공연을 앞둔 뮤지컬 '애비뉴Q'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강강술래 7월 문화이벤트
Avenue Q
애비뉴 Q 내한공연

star bag

일본서 첫 팬미팅 열어

김수현이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의 시부야 공회당에서 현지 첫 팬미팅을 열었다.

일본 공식 팬클럽 창단을 기념해 '김수현 퍼스트 재팬 팬미팅 2013'이란 제목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그는 출연작들의 추억담을 공개하고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OST '그대 한 사람'을 열창했다.

태국 프로모션 '감동의 눈물'

연기자 **박신혜**가 나흘간의 태국 프로모션을 마치고 1일 귀국했다.

이날 소속사에 따르면 현지 체류 기간 중 기자회견과 인터뷰, 방송 출연 등의 바쁜 일정을 소화한 박신혜는 29일 방콕의 싸얌 파와라이 로얄 그랜드 극장에서 단독 팬미팅을 열어 현지 팬들에게 노래와 춤을 선사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3회 공연에 10만 관객 몰려

남성 아이돌 그룹 **샤이니**가 지난달 28~30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개최한 '샤이니 재팬 아레나 투어 샤이니 월드 2013 ~ 보이즈 미트 유'의 3차례 공연으로 모두 10만 관객을 불러모았다.

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무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일본 8개 도시를 돌며 20만 관객을 동원할 계획이다.

'신의' 출연료 소송 승소

김희선이 SBS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한 억대의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에 미지급 출연료 1억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희선은 출연료로 6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제작사는 4억6000만여 원만 지급한 상태였다.

알고보면 똑 부러지는 새댁

드라마 '백년의 유산' — 유진

착하고 시집살이 겪은 채원이와 달라
작품 끝났으니 이젠 내조 집중해야죠
요정 이미지 벗고 카멜레온 연기자 꿈

시청률 30%를 넘기며 인기를 모았던 MBC '백년의 유산'이 막 내리고 지난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유진은 극중 여염집의 새댁이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illegible] 고된 시집살이에 이혼까지 겪었던 극중 인물과 달리 "똑똑하게 일과 가정 둘 다 행복하게 꾸려가고 싶다"고 똑 부러지게 말하는 신세대 새댁이었다.

#출연작 연달아 히트 … 막장 비판 신경안써

시청률 50%를 넘은 KBS2 '제빵왕 김탁구'에 이어 삼대째 내려오는 국수 공장을 둘러싼 인물들의 갈등과 사랑을 그린 이번 작품까지 연달아 히트했다.

극 초반 채원이 못된 시어머니 영자(박원숙)에게 머리채를 휘어 잡히고 정신병원에 감금당하는 등 모진 수모를 겪으면서 시청률이 쑥쑥 올랐다. 강철규(최원영)와 이혼한 극 후반에는 사랑하는 채원과 세윤(이정진)에 각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으로 의붓 남매가 되면서 갈등을 두고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50부작을 찍어본 게 처음이라서 힘들었지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여러 선배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죠. 특히 박원숙 어머니는 극에서와는 달리 성격도 좋고 열정도 대단하세요. 저요? 실제론 시집살이는 겪은 적도 없고, 성격도 채원이보다 당당한 편이죠."

극악무도한 시어머니에 의붓 남매의 사랑과 결혼까지 자극적인 요소를 담아 '막장 드라마'라는 비판도 받긴 했지만, 유진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아마 극 초반 시집살이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채원과 세윤의 사랑은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매잖아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어머니의 구분이 없어졌으니 명절에 편할 것 같아요. 하하하. 최악의 시집살이를 경험하다가 두 번째 결혼은 잘 한 것 같아 마음에 든답니다."

#연기-가사 병행 힘들어 … 튀는 역할 욕심

실제로는 결혼 3년째. 깨소금 향기 폴폴 나는 신혼 생활을 즐기는 새댁이다. 2009년 드라마 '인연 만들기'로 만난 기태영과 2011년 결혼했다. 기태영이 이번 드라마의 후속인 '스캔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에 출연해 인기 바통을 잇는다.

"연기와 가사를 병행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불가능해요. 지난 6개월간 드라마를 찍느라 바빠서 오빠 밥조차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젠 드라마가 끝났으니 잘 먹여야죠. 하하하."

일과 가정을 영리하게 잘 분배하고 싶다는 그는 "내 직업이 평범하지 않지만 김유진(본명)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최대한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남편을 향한 사랑과 가정의 소중함을 내비쳤다.

물론 연기 욕심이 없는 건 아니다. 착하고 수동적인 여주인공에서 벗어나 톡톡 튀고 뛰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S.E.S로 활동하면서 얻은 요정 이미지를 이젠 벗고 싶다. 카멜레온 같은 연기자가 되고 싶다"고 털어놨다.

또 한 가지 작은 바람이 있다면 멤버인 바다·슈와 함께 연기하는 것이다. 이번 드라마와 같은 시간대에 방영된 SBS '출생의 비밀'에 S.E.S 시절 경쟁 그룹이었던 핑클의 성유리와 이진이 함께 출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옛 시절을 추억하며 수다를 떨겠죠?"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사진/서보형(사운드라이브) 디자인/박선미

에비뉴Q

마이클 잭슨 임모털 월드투어

'마이클 잭슨 임모털 월드투어' '에비뉴Q' 등 줄줄이 무대

블록버스터 공연 러시

공연계 성수기인 여름을 맞아 대형 오리지널 공연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는다.

'퀴담' '알레그리아' '바레카이' 내한 공연으로 국내 최단기간 10만 관객 동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던 태양의서커스가 10~14일 블록버스터 공연 '마이클 잭슨 임모털 월드투어'를 새롭게 선보인다.

마이클잭슨재단과 계약을 맺고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팝 콘서트 연출가 제이미 킹이 연출하고, 마이클 잭슨과 함께 작업했던 스태프와 댄서, 밴드가 참여한다. 잭슨이 생전 추구하던 가치와 예술적 영감을 주제로 그의 음악 세계를 태양의서커스 특유의 방식으로 풀어낸다. 문의 02) 541-3173

다음달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샤롯데씨어터에서는 브로드웨이 화제작 '에비뉴Q'가 공연된다.

2003년 첫선을 보인 뒤 토니상에서 블록버스터 '위키드'를 누르고 최고작품상·극본상·음악상을 모두 휩쓴 작품이다. 또 브로드웨이에서 7년간 박스오피스 톱 10, 전 세계 관객 173만 명 동원과 흥행 수입 1290억원이란 기록을 세웠다.

배우들과 인기 캐릭터의 조합으로 이뤄진 성인용 뮤지컬이다. 미국의 인기 유아 TV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의 캐릭터 퍼펫으로 분한 배우들이 동성애와 포르노 중독 등 입에 담기 불편한 사회문제부터 청년 실업과 직장 생활, 섹스와 사랑에 관한 보편적인 문제까지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다. 문의 1577-3363

9월 5~22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는 세계적인 팝펑크 밴드 그린데이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아메리칸 이디엇' 브로드웨이 팀의 투어 공연이 열린다.

그린데이의 콘셉트 앨범인 '아메리칸 이디엇'의 주제와 내용을 충실하게 옮긴 브로드웨이 신작이다. 암울한 교외 지역에서 살던 세 청년이 각자 다른 운명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9.11 시대 이후 미국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과 정체성의 혼란을 시각으로 표현한다. 문의 1588-5212

/박준원기자 kak0427@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홍경민 뮤지컬 '미스터 온조' 캐스팅

가수 홍경민(사진)이 뮤지컬 '미스터 온조'에서 백제의 시조인 온조로 변신한다.

이 뮤지컬은 고구려 주몽의 셋째 아들인 온조가 백제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다. 극중 온조는 천명의 열쇠를 지닌 달꽃무리란 이름의 여인을 만나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고 새로운 나라의 건국에 나선다.

그동안 '남자가 사랑할 때'와 '원효', '신 행진 와이키키', '동물원' 등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발휘해온 홍경민은 달꽃무리 역의 쥬얼리 멤버 박세미, 뮤지컬 배우 박소연과 호흡을 맞춰 온조의 젊은 날을 연기한다. 온조 역에는 홍경민 말고도 '날아라 박씨'의 김민형과 아이돌 그룹 이사이트의 만후가 함께 캐스팅됐다.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공연되며, 2일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가 시작된다.

/조성준기자 when@

Bn 대선주조

예는 다르다!

예는 83년 전통의 향토 기업인 대선주조에서 최첨단공법과 최신위생설비로 만든 저도 소주입니다. 수돗물이 아닌 기장 삼방산 지하 220m 자연이 만들어낸 순수한 천연암반수 10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에 들어있는 토마틴은 아프리카 열대삼림지역에서 자생하는 열매로부터 추출되며 기존의 첨가제와는 차원이 다른 초고가의 자연추출 성분으로 소주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최고 수준의 재료만 사용하는 예는 부담없고 부드러우며 소주의 감칠맛을 충분히 살린 16.7도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예는 마실때는 물론 다음날 아침까지 생각한 고급 소주입니다

예

C1

<지매품>

거스를 수 없는 운명... 그래, 사랑이다!

뮤지컬

해를 품은 달

2013년 여름, 가슴 시린 조선의 젊은 사랑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7월 6일(토) ~ 7월 31일(수)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김다현 전동석 성두섭 조강현 전미도 안시하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옥션티켓 1566-1369 ticket.auction.co.kr 문의 | 오픈리뷰 1588-5212

김정화 우간다서 웨딩촬영 왜?

봉사 함께하기 위한 목적

뮤지컬로 활동 영역을 넓힌 김정화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웨딩 사진을 촬영한다.

소속사는 1일 "국제 구호단체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화가 다음달 24일 결혼식을 앞두고 이달 중순 예비 신랑인 CCM 가수 겸 작곡가 유은성과 우간다로 가 봉사활동과 웨딩 사진 촬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화는 우간다의 결연 아동 아그네스에게 바치는 노래 '안녕, 아그네스'를 인연으로 처음 만난 유은성과 1년 넘게 교제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뮤지컬 '그날들'의 서울 공연을 마무리하고 5~7일 대전으로 무대를 옮긴다. 그는 서울에서 마지막 무대를 끝낸 소감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꽃다발을 선물받고 환히 웃는 사진과 함께 팬들과 동료 배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성준기자

'월드 워 Z' 2주째 1위… 300만 돌파

이번주 대작 쏟아져 흥행 질주 막내릴듯

브래드 피트 주연의 좀비 블록버스터 '월드 워 Z'가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리며 전국 관객 300만 고지를 넘어섰다.

1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월드 워 Z'는 지난달 28~30일 전국에서 93만3607명을 불러모아 이시영·엄기준 주연의 공포 스릴러 '더 웹툰: 예고살인'(39만729명)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지켰다. 지난달 20일 개봉 이후 전국 누적 관객 수는 319만1961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월드 워 Z'의 흥행 질주는 국내외 흥행 기대작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한효주·설경구·정우성 주연의 범죄 스릴러 '감시자들'과 조니 뎁 주연의 액션 블록버스터 '론 레인저'가 3일과 4일 차례로 공개되는 데 이어 '퍼시픽 림'(11일)과 '미스터 고'(17일), '레드: 더 레전드'(18일)와 '설국열차'(다음달 1일) 등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일주일 간격으로 관객들을 공략한다. /조성준기자 when@

"태어나 가장 떨리는 날"

한혜진·기성용 결혼식 비공개 예배형식 진행… 신혼여행 못가

8세 연상연하 커플인 배우 한혜진과 축구선수 기성용이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들은 1일 오후 7시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가족과 친지, 연예계와 축구계 동료 등 총 650여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개 예배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결혼식에서 주례는 서울드림교회 김여호수아 목사가 맡았고, 축가는 양희가 불렀다. 이 자리에는 한혜진의 형부인 김강우를 비롯해 신세경·김효진·박건형·이윤지 등 소속 연기자들도 총출동했다. 수영선수 박태환도 참석했다.

두 사람은 예식 세 시간 전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을 앞둔 설렘과 기쁨을 드러냈다. 한혜진의 손을 꼭 잡고 입장한 기성용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다. 영국에 가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해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이라고 신부를 향해 애정을 내비쳤다.

이어 "스케줄상 내일 먼저 영국에 가게 돼 신부에게 미안하고 아쉽다. 신혼여행도 못 간다"면서 "(한혜진이) 영국에 오면 아쉬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혜진 역시 "태어나서 가장 떨리는 날이다. 멋진 신랑과 행복하게 잘 살겠다. 내조도 잘하겠다"고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3월 교제 사실을 밝힌 이들은 이미 지난달 25일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 부부가 됐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스완지시티에서 활동하는 기성용은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해 2일 출국하며 신혼 여행은 뒤로 미뤘다.

/황진환기자 hjh0427@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2NE1 "하반기 우리 독무대"

8일 '폴링 인 러브'로 컴백 10월까지 매달 한곡 발표

2NE1이 하반기 차트 점령을 선언했다.

지난해 7월 싱글 '아이 러브 유'를 발표한 후 공백기를 보낸 2NE1은 8일 신곡 '폴링 인 러브'를 출시하고 1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이들은 1일 아자수 이미지로 시원한 느낌을 살린 티저 포스터를 공개하고 컴백을 예고했다.

이들은 컴백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달 한 곡씩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는 새로운 활동 전략을 세웠다. 지금까지 발표한 음악들을 모두 차트 정상에 올려놓았던 만큼 하반기 가요계를 자신들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가을까지는 상반기에 신곡을 발표했던 많은 인기 걸그룹들이 휴지기에 들어가는 기간이므로 2NE1의 독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폴링 인 러브'는 2NE1이 처음 시도하는 레게 장르의 곡이다. 여름을 겨냥해 선택한 장르로 일렉트로닉 힙합을 주로 불러온 2NE1이 어떤 식으로 소화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2NE1은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모두 마쳤으며 새로운 패션 안무가와 함께 호흡을 맞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엄태웅이 최민수 닮았다고? 3일 시작될 KBS2 새 수목극 '칼과 꽃'에 부자지간으로 출연할 엄태웅(왼쪽)과 최민수가 1일 서울 여의도 63시티 주니퍼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서로 껴안으며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다. 이날 엄태웅은 "고등학생 때 내가 최민수 선배와 닮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 얼굴은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습니다만.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무료 줄기세포 치료

엄홍길휴먼재단, 연세사랑병원과 '카티스템' 치료 후원 협약

노년기에는 신체 구조와 기능들이 젊었을 때와 달리 점차 쇠퇴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관절은 노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신체 부위 중 하나다. 인체에는 약 100여 개의 관절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관절들은 잦은 운동 등으로 인해 점차 노화하게 된다.

특히 무릎관절은 노화의 변화를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다. 운동량이 많고 일상적인 움직임의 대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질환이 생기기 쉬운 부위이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릎 퇴행성관절염이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무릎관절 내 연골이 손상되어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무릎관절 내 연골 손상은 외상, 스포츠 손상, 노화에 따른 퇴행적 변화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앞서 퇴행성관절염은 고령층의 전유물이라고 알려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스포츠와 외부 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중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무릎 관절 환자는 최근 4년간 2.1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말기엔 인공관절… 초·중기엔 줄기세포 치료 가능

무릎관절 내에 위치한 연골은 신경세포가 존재하지 않아 손상되거나 닳아 없어져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무릎 퇴행성관절염 통증은 연골이 닳아 없어져 무릎 위아래 뼈가 서로 맞닿기 때문에 발생한다. 연골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연치유가 불가능하다.

인공관절 수술은 이처럼 연골 대부분이 손상됐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치료 방법으로 적당한 재활 기간을 거칠 경우 운동량을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인공관절의 수명이 다하면 재수술을 염두해둬야 한다. 병원에서는 이러한 주의점 때문에 65세 이상 무릎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에게 인공관절술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초·중기에 시행할 수 있다. 미분화된 세포를 손상된 연골 병변에 주입, 연골로 분화하게끔 만듦으로써 재생시키는 원리다.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는 성인의 골수·제대혈(탯줄 혈액)·지방 등에서 채취할 수 있다.

지난해 연세사랑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던 최모(57)씨는 "예전엔 등산과 자전거 타기를 즐겼는데 무릎이 아프고 나서는 전혀 하질 못했었다"면서 "자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등산에 나설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무료 줄기세포 치료 후원

줄기세포 치료는 최신 치료법인 만큼 비용이 높아 경제 사정이 어려운 환자들의 경우 치료를 결심하기 어렵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과 연세사랑병원이 제대혈 유래 동종 줄기세포 치료(카티스템)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후원한다.

후원의 주관 및 접수는 엄홍길휴먼재단이, 의료 서비스는 연세사랑병원이 지원한다.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는 "일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면서 "연세사랑병원과의 후원 협약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상미기자

◆ 무료 치료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캠페인담당자)

인터넷: www.uhf.or.kr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후원캠페인 팝업창 통해 신청

식품업체들 건강식품에 '맛' 들였네

동원F&B 'GNC' 대박 이어 오뚜기, 美 파마바이트의 '네이처메이드' 판매 나서

대세는 건강이다. 고령화와 웰빙 문화 확산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어나자 식품업체들이 '건강 시장'에 힘을 쏟고 있다.

오뚜기는 1일부터 미국 파마바이트사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네이처메이드'를 한국에서 독점 판매한다.

1971년 설립된 파마바이트는 비타민과 오메가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미국에서만 매출 1조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멀티비타민&미네랄', '츄어블 비타민C', '오메가 1000', '글루코사민 1500' 등 8종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출시한 자체 브랜드 '네이처바이'와 네이처메이드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F&B는 수입 건강식품 브랜드 GNC의 국내 판매 7000만 형 돌파를 기념해 'GNC 777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7월 한 달간 GNC의 대표 제품 7종을 GNC 골드회원들에게 70% 할인(비회원 50%)해준다. 행사 제품은 GNC의 스테디셀러인 '메가맨'과 '우먼스 울트라메가'를 비롯해 '울트라메가 골드', '메노골드 포뮬라', '솔로트론 츄어블', '구연산칼슘 플러스', '울트라 오메가-3 골드' 등이다. /이국명기자 stya@

개그쇼·경품… 신나는 건강강좌

4일 이대병원 김옥길홀 유방암·간질환 관련강좌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4일 오후 3시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유방암·간질환 건강강좌 및 개그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암환자 및 가족, 일반 시민을 초청해 유방암과 간암 및 다양한 간질환의 예방·치료를 주제로 한 건강 강좌와 MBN '개그공화국' 출연팀의 개그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1부 유방암 및 간질환 건강강좌에서는 이대여성암병원 임우성 유방암·갑상선암센터 교수의 '올바른 유방암 자가 검진과 예방 및 치료', 이대목동병원 김태헌 간센터 교수의 '만성 간질환 알아보기'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인기 개그맨 윤택·한현민·이광채·이재형 등 10여 명의 개그맨들의 개그 공연이 이어진다.

참석자 모두에게 여성건강백서 '여자 40세부터 건강하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유방 초음파 촬영권, 복부 초음파 촬영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대목동병원 홍보과(02-2650-5504)로 문의하면 된다. /박지원기자

포카리스웨트 퀴즈 맞추고 자동차 받자!

동아오츠카의 포카리스웨트가 '열사병 탈출 퀴즈 이벤트'를 8월까지 총 세 차례 실시한다.

그중 첫 번째로 5일까지 포카리스웨트 공식 블로그(www.pocarisweatblog.com)에서 열사병 예방 퀴즈를 풀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2명), 타워팬 선풍기(3명), 포카리스웨트 한 박스(20명)를 선물로 준다.

이와 함께 포카리스웨트 라벨 안 행운번호를 입력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블루라벨 캠페인 퀴즈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박인비 사상 첫 캘린더 그랜드슬램 도전!

박인비가 1일 골프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 우승이 확정되자 두 손을 번쩍 들어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내달 브리티시오픈서… 메이저대회 새역사

1일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63년 만에 시즌 개막 후 메이저대회 3연속 우승의 신기록을 세운 박인비가 앞으로 써내려갈 골프 역사는 무궁무진하다.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웨그먼스 미국여자골프(LPGA) 챔피언십에 이어 US오픈까지 올해 열린 메이저대회에서 차례로 우승한 박인비는 브리티시오픈(8월 1~4일)에서 우승하면 '캘린더(calender) 그랜드슬램'이라는 대위업을 이룬다.

캘린더 그랜드슬램은 한 해에 4대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는 것으로, 평생에 걸쳐 4대 메이저대회를 한 번 이상 제패하는 '커리어(career) 그랜드슬램'에 비해 기록 달성이 어렵다.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오직 남자 골퍼 보비 존스 뿐이다. 존스는 1930년 US오픈, 브리티시오픈, US아마추어, 디 아마추어 등 4개 대회를 모두 우승했다. 그러나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출범한 1934년 이전의 기록이라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여자부에서는 루이스 서그스가 1957년 처음으로 4대 메이저대회를 정복한 이래 2003년 안니카 소렌스탐까지 여태 6명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뤘다.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은 1963년 미키 라이트가 작성한 13승이다. 올해 6승을 올린 박인비가 이 기록을 따라잡으려면 남은 13개 대회에서 절반 이상을 우승해야 한다.

2007년 로레나 오초아가 세운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초아는 2007년 8승을 수확하고 시즌 상금 436만4000달러를 벌어들였다. 당시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나 걸린 ADT 챔피언십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인비는 US여자오픈 우승으로 시즌 총상금 200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제는 10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주는 대회가 존재하지 않아 기록 돌파가 쉽지 않다.

역대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 기록은 패티 버그가 보유하고 있는 15승이다. 버그는 1937년부터 1958년까지 무려 21년에 걸쳐 15승을 달성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2008년 US오픈 우승 이후 슬럼프

작년 에비앙 마스터스 정상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

박인비의 메이저대회 첫 우승은 5년 전인 2008년 나왔다.

1998년 박세리가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골프를 시작한 박인비는 첫 우승을 자신에게 골프의 꿈을 주게 했던 US여자오픈에서 일궈냈다. 당시 나흘 동안 유일하게 언더파 스코어를 기록하는 안정된 경기를 펼치며 합계 9언더파 283타를 쳐 2위 헬렌 알프레드손(5언더파)을 4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박인비는 이 우승으로 대회 최연소 우승자 기록을 세웠다. 대회 역사상 만 20세가 안 된 우승자는 박인비가 처음이었다. 한국인으로서 박세리 박지은 김주연 장정에 이어 다섯 번째로 LPGA 메이저 퀸에 등극했다.

하지만 이후 극심한 슬럼프를 겪었다. 2009년 출전한 20여 개의 대회 중 3분의 1가량에서 컷 탈락했고, 2010년에는 KIA클래식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톱 10 안에 11번 들었으나 우승은 없었다. 2010년에는 일본 무대로 눈을 돌려 올해까지 4승을 올렸지만 LPGA 투어와는 우승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4년 만에 생애 두 번째 LPGA 우승컵을 들어 올린 뒤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사임다비 말레이시아 우승컵을 더해 시즌 상금왕과 최저타수상을 석권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출전한 혼다 LPGA 타일랜드 대회에서 극적으로 우승해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고, 4월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통산 두 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컵과 함께 세계랭킹 1위 자리를 거머쥐었다.

박인비는 기세를 이어 노스텍사스 슛아웃에서 정상에 오른 뒤 6월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서도 연장전 끝에 베테랑 카트리나 매슈(스코틀랜드)를 꺾고 시즌 4승째, 통산 세 번째 메이저대회 정상을 차지했다. /김민준기자

석진욱 지도자로 새출발

삼성화재 돌도사 석진욱(37·사진)이 정들었던 배구 코트를 떠나 지도자로 새 출발 한다.

러시앤캐시 배구단은 1일 석진욱과 수석코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석 코치는 한양대를 거쳐 1999년 삼성화재에 입단한 뒤 15년간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신장이 크지는 않지만 뛰어난 점프력과 탁월한 배구 센스로 삼성화재의 프로배구 7차례 우승을 견인했다.

석 코치는 "오랜 기간 한솥밥을 먹은 김세진 감독님과 풍부한 V리그 우승 경험을 살려 신생팀 러시앤캐시 배구단 전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디지털 야구와 아날로그 심판

프로야구 심판들이 요즘 죽을 맛이다. 계속되는 오심성 판정 때문이다. 심판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 프로야구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솔직히 판정 논란은 프로야구 초창기가 더욱 심했다. 감독들이 심판실로 쳐들어가 의자를 부수거나 때리기도 했다. 심판들도 선수나 감독에게 은근히 골탕을 먹였다. 그러나 팬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TV 중계도 적었고 대개 라디오를 듣는 경우가 많은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초정밀 TV 디지털 시대다. 전 경기가 중계되고 첨단 기술력을 동원해 경기를 세분한다. 카메라가 야구장의 모든 곳을 샅샅이 훑는다. 공의 회전 수도 셀 수 있을 정도다. 특정 상황이 생기면 온갖 각도에서 다시 보여준다. 심판들의 판정도 마찬가지이다.

심판은 기계가 아닌 인간이다. 오심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자주 생긴다. 다만 판정이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달 15일 넥센-LG전 오지환 2루 세이프 판정, 그리고 28일 삼성-KIA전 삼성 정형식의 도루 세이프 판정이 대표적이다. 둘 다 '아웃 세이프' 판정이어서 번복이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오심 피해를 당한 팀이 졌다.

TV는 두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인터넷은 들끓었다. 피해를 당한 쪽은 팬들까지 합세해 맹공을 가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홈페이지는 몸살을 앓았다. 해당 심판의 이름은 순식간에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진입했다. 디지털 야구의 위력이었다.

역설적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오심은 분명 줄어들었다. 심판들도 절차탁마를 했다. 그렇지만 오심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그래서 판정에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아날로그, 즉 인간의 시선과 판단을 믿어야 한다. 야구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단 아날로그의 의도성은 없어야 할 것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Come in, please. 부탁과 명령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들어오세요.
문을 닫아주세요.
문을 열지 마.
이제 읽어보세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Come in,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Don't open the door.
Now read, please.
It's time to begin.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A It's time to 시작해요, Harry.
B Yes, Mr. Green.

정답 begin

▶ 패턴 훈련

1 Come in / Stand up, please.
2 Don't open / close the door.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1

be동사 현재시제 의문문

▶ be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위치시켜 만들어 ~인가요?를 의미한다

긍정	의문
I am	am I
you/we/they are	are you/we/they
he/she/it is	is he/she/it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_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Are you a nurse? 간호사세요?
2 Is she friendly? 그녀는 상냥한가요?
3 Are they in town? 그들은 시내에 있나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East Abbey City is run _______ a mayor and six-member council who are elected for four years.
(A) of (B) among
(C) by (D) from

02 _______ about the actual cost of the project have delayed the plans for expanding the arena.
(A) Additions (B) Manners
(C) Materials (D) Concerns

01. 이스트 애비 시는 4년 임기로 선출된 시장과 6인의 의회에 의해 운영된다.
정답 (C) by

02 프로젝트의 실제 비용에 대한 우려로 경기장 확장 계획이 지연됐다.
어휘 actual 및 실제의 delay 를 지연시키다 expand 을 확장하다 arena 몇 경기장 addition 몇 추가
정답 (D) Concerns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2. Describe a picture

사진 속 장소 말하기

This is a picture taken at a restaurant.
This picture must have been taken at a restaurant.
This is a picture of a restaurant.

This is a picture taken in the park.
This picture must have been taken in the park.
This is a picture of a park.

This is a picture taken indoors.
This is a picture taken outdoors.